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4년 5호

주현절 다섯째 주일

2019년 2월 3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영원한 언약 | 오경수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사랑의 주여, 우리 여기 있나이다(J. S. Bach)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재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모임찬송**

34장(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시 145:9)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회 중: 아멘.

***송영**

성가대

***시편교독**

목 사: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회 중: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목 사: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회 중: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목 사: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회 중: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시 71:17-19, 23).

경배찬송

218장(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시 145:18-19),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회 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요한1서 1:9). 아멘.

응답송

자비하신 주여(경동찬송 17장) **다함께**

자비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우리들을 돌보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주님께서(시 103:3-4),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시 103:12).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1:4-10	1부: 이강송 집사 2부: 이재인 집사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13:1-7	1부: 채해림 집사 2부: 편순남 권사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 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4:21-30	목사
찬송	135장(어저께나 오늘이나)	다함께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박선교 목사
응답송		성가대
찬양	오 찬송 드리세(Hans Leo Hassler)	1부 성가대 지휘: 정록기 집사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J. M. Stevens)	2부 성가대 지휘: 김선아 집사
설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성만찬

찬송	228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 4절	다함께
성만찬 초대		집례자
성만찬 기도		다함께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 중: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 중: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회 중: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응답송	찬양하여라(경동찬송 5장)	다함께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23-26	집례자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성만찬 나눔		다함께

(세례 받은 성도들은 제단 앞으로 나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감사의 기도		다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여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흠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냄

봉헌과 찬송	283장(나 속죄함을 받은 후)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성가대
후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R. Lowry)	1부 오르가니스트
	영광의 왕께 다 찬양하라(J. M. Haydn)	2부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생활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새교우 등록실(친교실 옆)을 방문해 주십시오.

1. 교우소식

- ▶장례: 故 김재성 장로(김호 집사 조부 · 김유정 집사 조부, 1월 26일[토] 소천, 1월 28일[월] 발인)
故 김우홍 권사(윤인숙 권사 시모, 송정민 교우 조모, 송정안 교우 조모, 1월 30일[수] 소천, 2월 1일[금] 발인)
- ▶수상: 박수길 장로(3·1문화재단 ‘제60회 3·1문화상 수상’-예술상)
- ▶전시회: 이회재 집사(이피 개인전-‘현생누대 신세대 이피세’ 1일[금]-24일[주일] 롯데 에비뉴엘 아트홀)

2. 기도회

- ▶아침기도회: 오늘(3일) 오전 8시 소예배실
- ▶교회학교 교사 아침기도회: 오늘(3일) 오전 8시 40분 교육관 203호
- ▶화요아침기도회: 5일(화) 화요아침기도회는 설 연휴로 쉽니다.

3. 모임

- ▶선우회: 오늘(3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3호
- ▶기억과전망위원회: 오늘(3일) 오후 1시 소테츠호텔 2층(구, 헤리티지 호텔)
- ▶당회: 다음 주일(10일) 오후 1시 30분 당회실
- ▶드보라2소회: 다음 주일(10일) 1부 예배 후 당회실
- ▶루디아소회: 다음 주일(10일) 1부 예배 후 여신도실
- ▶중우회: 다음 주일(10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3호
- ▶청우회: 다음 주일(10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6호

4. 교회학교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보고 전시회

- ▶일시와 장소: 오늘(3일)부터 2월 말까지, 친교실

5.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수련회

▶일시와 장소: 8일(금)~9일(토)[1박 2일] 더케이호텔 서울

6. 소아시아 성지순례(터키, 그리스, 로마) 참가자 준비 모임

▶일시와 장소: 9일(토) 오후 2시 당회실

▶대상: 참가자 전원

7. 2019년도 남신도회 신년회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10일) 오전 11시 30분 교육관 203호

8. 경동교회 혼인학교 제4기: 둘이 함께 걷는 길(3회)

▶주제: 집 떠나기(강사: 정연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10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다음 주제 안내: 우리 부부의 생애 재무설계(황진주 박사/17일[주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주관: 신도교육위원회(위원장: 김원희 집사)

9. 2019년도 교회장학생 선발

▶대상: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제출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부서장 추천서

▶신청: 다음 주일(10일)까지 사무실(신청서 사무실 비치)

10. 구역장 및 구역인도자 모임

▶구역장 모임: 12일(화) 오전 11시 소예배실

▶구역인도자 모임: 13일(수) 오후 6시 당회실

11. 경동갤러리카페, 친교실 안내

경동갤러리카페, 친교실은 오늘(3일) 설 연휴로 쉽니다.

12. 2월 예배 안내 위원

1부: 임연건 집사·원정혜 집사, 심화섭 집사·황은주 집사, 이성준 집사·김덕선 집사

2부: 김성호 집사·김미경 집사, 김영걸 집사·심영선 집사, 이재열 집사, 박성지 집사

13. 다음 주일(2월 10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수요기도(2월 13일)	
여정성 장로	1부	신재준 집사·천혜경 집사	아침	안종숙 권사
	2부	김영문 집사·박성순 집사	저녁	이은희 권사

특별봉헌/ 1월 27일

감사헌금: 강신재·함천진(어머님 장례), 곽진영(어머니 장례), 김광명·최문자(모든 은혜), 김문식·공순복(하나님 은혜), 김민정(십일조),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지옥(십일조), 박성준·김성(한승 생일), 박연길(십일조), 박찬호(감사), 배영호·박영조(십일조, 하나님 은혜), 안에스더(함께하심), 양정녕·박주일(감사), 윤은숙(겨울 성경학교 잘 마침), 이동환(십일조), 이승자(감사), 이지혜(허난설현 작업 함께하시길), 임유수(감사), 정지석·정기화(범사), 채수일·김경숙(범사, 십일조), 하지영·권선영(민성생일), 한현옥(회사 이전), 황연성·안미경(하나님 은혜), 무기명 12명(감사)

예배와 집회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예레미야서 23:28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윤은숙 목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예레미야서 22:20-21, 시편 119:6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윤은숙 목사
중 · 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예레미야서 23:23-32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본당 예배 참석)			
화요아침기도회	화요일 10:00 소예배실	설 연휴로 쉽니다.		
금요기도회	금요일 19:30 미래를 여는방	생명평화기도회		

수 요 예 배 (2월 6일)

수요 아침예배와 저녁예배는 설 연휴로 쉽니다.

다음 주일 말씀

2월 10일(주현절 여섯째 주일)

성 경: 구 약(이사야서 6:1-8)
서신서(고린도전서 15:1-11)
복음서(누가복음서 5:1-11)

설 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채수일 목사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설 날 가 정 예 배

영원한 언약 | 오경수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설날 가정예배 순서

예배 부름

인 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회 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 도: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회 중: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인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회 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이다.
 인 도: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이다.
 회 중: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 128편).

찬송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공동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모여 설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은혜 올해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값있게 여겨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결심에 그칠 뿐 행함 없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나라와 겨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 각자 믿음의 소망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빌레몬서 1:10-12

내가 간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말씀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인도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었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있어 어려운 사람들을 성심껏 도와주는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A.D. 1세기 그레코-로마시대에는 참 노예가 많았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아텐(아테네)의 인구가 45만 명인데 그 중에 자유민은 2만 명이고, 외국인이 3만 명, 나머지 40만 명은 모두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노예가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오면 주인은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때에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는 장장 1,400km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로마로 도망쳐 온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거나, 아니면 검문 검색중 도망친 노예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멀리멀리 도망쳤지만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뜻하지 않게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성심성의껏 보살핍니다.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한 통의 편지를 써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그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지로 생각한다면 여기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당신의 종이나 노예로 여기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주고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 바울 앞으로 달아놓아 달라. 나는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16-18)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건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주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도망자요 절도범입니다. 무슨 온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이 당시의 법과 관습대로 처분한다 해도 원망 받을 일이 아닙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신뢰에 감동받으며 오네시모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아주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용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빌레몬이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의 품안에 껴안아 주었을 것이고,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의 더할 수 없는 깊은 사랑에 뜨겁게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 되었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설’의 어원에 관한 유래와 그 의미는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새 것으로 바뀐다, 또는 새것의 시작이다’는 뜻입니다. 또 한 해를 맞는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만큼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갈등, 다툼, 대립, 미움, 증오 그리고 살인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용서가 인색한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덮이 놓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낌없이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고, 새롭게 살아가 조심하며, 새로운 날,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설은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날과 시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찬송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함께

-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주님의 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